■ 교육부, 전국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발표

제주서 폐암 확진 첫 사례 나와

제주 587명 검진… 추적 필요 '경계선 결절'도 5명
도교육청 "검진 대상 확대·환기시설 개선 등 적극"

제주지역 학교 급식 종사자 587명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1명이 폐암을 확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검진은 제주 등 14개 시도교육청 급식 종사자 중에서 10년 이상 경력 또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이 검진은 폐암이 확진된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이 계기였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12월 관련 대책으로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계획을 내놨고 전국 교육청이 검진을 실시한 것이다.

전국 2만4065명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14개 시도의 폐암 확진자 수는 총 31명으로 파악됐다. 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계선 결절'은 534명이었다. 향후 3개 시도교육청 결과까지 나올 경우 확진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함께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을 운영해 폐암 확진자들에게 산재 신청을 안내하고 치료에 필요한 병가 등이 신속히 시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는 폐암 확진자 1명과 함께 '경계선 결절' 5명, '양성 결절' 138명이 확인됐다. 2023년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진행된 지난해 12월 9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시만 해도 '경계선 결절' 3명, '양성 결절' 84명이었지만 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수가 늘었다. 폐암 확진자의 경우엔 지난해 12월 중순 검진에서 '폐암 의심'으로 분류됐고 올해 초 추가 검진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진 대상은 조리사, 조리실무사, 영양사, 영양교사 등이었다. 도교육청은 검진 결과를 토대로 '경계선 결절'은 물론 '양성 결절'에 대해서도 재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10년 이상이나 55세 이상 대상자 외에 나머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검진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미검진 학교 급식 종사자는 520명 정도다. 급식실 현대화나 시설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은 학교 79곳에 대해서는 '환기 시설 점검 용역'을 벌이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도 급식 종사자들의 추가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검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학교 급식실은 공사 후 현장 모니터링 등 시설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14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성마을 입구에서 진행된 벚나무 그루터기 이식 작업을 대책위원회가 막아서며 양측이 대치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설촌 상징 벚나무 '솔로몬의 지혜' 없나

제주시, 제성마을 그루터기 이식 작업… "필요" vs "그 자리 보존" 맞서

도로 확포장 공사로 제거된 제주시 제성마을 벚나무와 관련한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남은 벚나무 그루터기 이식 작업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들이 대치했다.

제주시는 14일 연동 제성마을 입구 도로변에 위치한 벚나무 그루터기 이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이식 작업의 목적은 새로 조성될 인도 한가운데에 벚나무 그루터기가 위치해 있어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1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현장에 있던 제주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이식 작업은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벚나무 대책위원회 오면신 위원장 등이 그루터기 옆에서 굴착기를 막아서며 작업은 중단됐고, 오 위원장 측과 현 제성마을회 관계자들이 언성을 높이며 대치하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현 제성마을회 관계자는 "지난 2월 19일 마을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벚나무 그루터기에 대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식에 동의했고 제주시에 정기총회 내용을 제출하고 이식 작업을 요청했다"며 "벚나무를 살리고 가꾸기 위해 이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성마을 인근 도로 확포장 공사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현재 위치에서 10m가량 그루터기를 옮겨 심고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오 위원장 등이 작업을 방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오 위원장은 "벚나무 그루터기가 있어도 인도 보행공간은 확보된다"며 "훼손된 제성마을 벚나무와 같은 30년 이상 된 벚나무 12그루를 똑같이 심고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를 보존하는 것이 벚나무 대책위원회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인도 조성과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이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재개 시점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최근 3년 수상레저사고 214건 접수

제주 10건 중 7건 정비불량인한 고장으로 표류

봄철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해경이 선제적 무상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4월부터 도내 주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출·입항지에서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 점검 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대부분 육상에서 보관하다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며 5년 주기 안전 검사에 의존하다 보니 기구를 방치하거나 점검에 소홀해 고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해경에 접수된 수상레저 사고 총 214건 중 155건인 72%가량이 단순 고장에 의한 표류 사고였으며 기구별로는 모터보트 81%, 고무보트 16%, 세일링 요트·수상오토바이 3% 등의 순이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정비 불량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도영기자

해경, 차귀도 해상서 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제주 해상서 불법 조업을 일삼은 중국어선이 해경에 단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4일 새벽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57㎞ 해상에서 50t급 유망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경은 조업 일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삼치 등 약 80㎏을 어획하는 등 한국수역에서의 어업의 허가 등에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

해경은 A호를 나포한 뒤 현장 조사 후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받고 석방 조치했다. 김도영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5월부터 여성공무원도 야간당직 선다

도, 여론수렴 시행계획 공지

제주자치도는 여성공직자회와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부터 여성도 야간 당직근무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시행계획을 공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여성 공무원 야간 당직근무는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이라는 대의적 명분도 있지만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남성 공무원들의 야간 당직근무 주기가 지속적으로 짧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부서 자체 당직을 실시하는 부서를 제외한 당직 가용인원은 남성 315명, 여성 295명으로 양성 간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당직근무 주기가 야간근무(숙직)만 하는 남성은 5~6개월, 휴일 주간근무(일직)하는 여성은 13~14개월이다.

한편 다른 시도의 경우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대전에서 양성통합 당직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세종시는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당 축 선
CONGRATULATIONS

한림수협 조합장 한경농협 조합장 고산농협 조합장

양 기 호

김 균 진

고 영 찬

1만여 한경면민의 뜻을 모아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경면주민자치위원장 양원보 한경면이장단협의회장 좌용신 한경면노인회장 김영소 새마을지도자한경면협의회장 변재성
한경면새마을부녀회장 변영순 바르게살기운동한경면위원장 김계남 한경면발전협의회장 조은호 한경면연합청년회장 좌부은
한경면체육회사무국장 강형권 외 회원 일동